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3.9.(월) 08:00 < 3.9.(월) 석간 > 배포 2026. 3. 6.(금)

정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 최근 중동 사태 관련,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시장 긴급 점검 -
- 비상시 대응을 위한 비축유 방출계획 수립, 가격안정화 방안 추진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정유4社(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석유공사, 석유협회 등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전날(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3월 5일(목)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❶비상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❷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❸또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담합, 가짜 석유판매, 정량 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합동점검 및 특별기획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끝.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열규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성치운 (044-203-52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 (국내석유시장 점검)**

□ 개 요

○ **(일 시)** ’26. 3. 9.(월), 08:00 ~ 09: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산업자원안보실장

(업 계)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유관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도로공사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8:00~08:03	(03′)	▸ 모두 발언	장관
08:03~08:08	(05′)	▸ 석유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자원안보실장
08:08~08:13	(05′)	▸ 정유사·주유소 석유공급 및 가격 동향	석유공사
08:13~08:18	(05′)	▸ 석유 업계 수급·가격 동향	석유협회
08:18~08:58	(4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08:58~09:00	(02′)	▸ 마무리 발언	장관